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23.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·과장 한명희, 사무관 현기창 ·☎ (044) 201-358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'19.2월부터 양산시내 아파트, 학교, 공공청사, 종합운동장 등*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
 - * 피해 현황 : 제2청사 등 공공건축물 6개소, 민간건축물 14개소

- 양산시는 자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피해지역(17개소, '19.3.13~4.9)과 주변 공사현장*(2개소, '19.3.26~3.29)에 대한 점검을 통해 피해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,
 - * 도시철도 노포-북정3(연장 : 2.3km, 경전철), 주상복합건물(지상 44층, 지하 4층, 2개동)

- 지반침하 원인조사 및 보강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(대한토목학회, '19.4.22 착수)에 착수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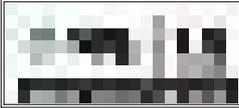
-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종합운동장,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- 지반침하 주변 도시철도 교각공사와 주상복합 건축공사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18.1) 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,
 - 국토교통부는 양산시 지반침하 등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산시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JTBC, 4.22.) >

◆ 경남 양산 지반침하에 ‘씩씩’...하늘 보이는 학교 승강기

- 경남 양산 중앙동 지반침하 발생, 피해규모는 길이 1.2km, 폭 400m 규모, 일대 19개의 건물이 피해, 양산시 정밀안전점검 진행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건설안전과 현기창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